

공정위-법원 대립...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한 용 수 역
돌직구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와 법원이 유례없는 정면 대립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기업들을 겨냥해 내린 행정처분과 현장조사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내린게 발단이다.

공정위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불응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화 역시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건 모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밀가루·전분당 업체들의 담합을 제재하면서 이례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라는 취지다. 이 명령 역시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가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 지정 변경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한 간담회에서 현장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의 최후 보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비자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양쪽의 불이익을 공정하게 따져 달라고 요구했다. 조사 규칙을 고쳐 조사를 피할 여지를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각자의 역할만 놓고 보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기업으로서 행정기관의 처분이 옳은지 법원에 묻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지를 신중히 따진다. 공정위도 담합을 적발하고 시장 가격을 바로잡으려는 책무를 다하고 있다.

우려되는 지점은 공정위와 법원의 대립 구도가 굳어지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수장이 진행 중인 사법 판단을 두고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원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정위의 주장이 옳다면 그 근거는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로 입증하면 될 일이다. 여론전으로 비칠 여지를 남기는 것은 어느 쪽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 행정조치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조사 절차상 특이점이 없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잇따라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지 않다. 조사 강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져 거래 구조가 흔들린다는 불만도 나온다. 공정위는 규칙을 손볼 때 기업의 방어권을 함께 살펴야 한다. 조사를 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과 절차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할 과제다.

집행정지가 길어지면 담합 가격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안에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기업이 입는 피해도 크다. 어느 쪽이든 본안 판단이 늦어질수록 손해다.

공정위의 행정 집행 권한과 기업의 방어권은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관계가 아니다. 공정한 시장은 강한 집행과 공정한 절차가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진다. 법원의 제동을 '무력화'로 받아들이기보다, 처분과 조사 절차를 더 단단하게 다듬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법부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헤아려 판단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 자리에서 제 몫을 하되, 서로를 겨누지 않는 것. 그것이 소비자와 시장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세종=hys@metroseoul.co.kr

대입 원서접수, 책임 구조부터 바로 세워야



김 수 정
(유통·라이프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이 또 멈췄다. 지난 11일 수시모집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경 유웨이 접수 시스템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접수마감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예정된 시간에 경쟁률을 공개했고, 접수를 놓친 수험생과 연장 기간에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이 뒤섞이며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시스템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정시모집 마감일에는 유웨이-어플라이뱅크-어플라이114 등 원서접수

대행업체 3곳의 서버가 마비됐다. 당시 교육부는 접수기간을 하루 연장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했다.

대입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업체가 대학과 계약해 대행한다. 민간 업체 두 곳이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곧 이어져 왔지만, 정부는 좀처럼 바로잡지 못했다. 2013년에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대입 원서접수를 통합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나 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대학과 업체 간 계약 관계를 이유로 직접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왔다.

이번 사고로 구조의 빈틈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교협의 장애 대응 매뉴얼에는 접수연장이나 장애 사실을 수험생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지,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경쟁률 공개로 발생한 정보격차를 해소할 방법은 없었던 것이다. 원서접수 과정에 여러 주체가 관여하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질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해 구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354건의 구제를 확정하고 경쟁률 확인 후 지원한 3건에는 대학에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 원서접수 체계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사고 시 대응 기준과 명확한 책임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공적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침해받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입시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 /kcrystal@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3일 (음 8월 1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소망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60년생 짝잘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72년생 동료의 유혹에 동조되지 마세요. 84년생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49년생 아직 귀하의 때가 아닐 것입니다. 61년생 여태껏 노력을 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73년생 만사가 평온한 시기입니다. 85년생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로울 것입니다.



50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계약 건이 체결됩니다. 62년생 유명한 회사에 특채로 입사하게 되겠습니다. 74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86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51년생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63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75년생 고집부리지 마세요. 87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52년생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64년생 뒷사람의 충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76년생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는 형상입니다. 88년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53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65년생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77년생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89년생 남성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며 여성은 출가를 합니다.



54년생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 하리라 봅니다. 66년생 본인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78년생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90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5년생 귀하 혼자 힘으로 버거운 사업입니다. 67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79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조심하세요. 90년생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56년생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68년생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세요. 80년생 겸손함을 잊지 마세요. 92년생 전업이나 취직 등은 어려운 운입니다.



57년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유리합니다. 69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81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93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58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이루게 됩니다. 70년생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 내야 합니다. 82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94년생 성공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59년생 장거리 여행에도 장애가 없습니다. 71년생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83년생 늦은 귀가는 금물입니다. 95년생 직장내에서의 구설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회의四季 재(齋)와 제(祭)

병오년의 8월27일 백중재는 서오릉 위치한 지역 여건이 허락지 않아 조금은 협소하지만 충청로월광사에서 오순도순 재를 모셨다. 마음이 모인 정성이라면 장소의 대소에 재의 공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에, 진심을 담아 회향하는 시간이었다. 필자 역시 감사함을 회향하였다. 백중재가 끝나고 점심 공양을 하는데, 신도 한 분이 묻는다. "원장님,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는 '제'라고 하는데, 백중재는 '재'라고 하잖아요? 제와 재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비록 제사 풍속이 점점 사라져 가고는 있어 그 뜻을 잘 모른다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지만,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가볍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유교 전통하에서 제사는 매우 중요한 풍속이다.

이렇게 제사(祭事)라고 할 때는 제사 제(祭)자를 쓰는데, 제사(祭祀)는 신령이나 사망한 조상의 혼령 등에게 제물을 바쳐 예를 표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기제사(忌祭事)처럼 매년 돌아가신 날을 기일(忌日)로 하여 지내는 제사를 기제(忌祭)를 지낸다. 기제를 올린다고 하며 조상님들 돌아가신 날을 기리는 것이다. 백중재, 천도재처럼 일반 가정이 아닌 사찰이나 암자에서 돌아가신 선망 조상이나 특정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제사는 재(齋)라고 하지, 제(祭)라고 하지 않는다. 차리는 음식이 차이가 있다. 일반 가정에서 선망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위하여 제사를 올릴 때는 고인이 생전에 일상적으로 즐기던 음식 위주로 차리는 것이기에 나물이나 과일은 물론 생선이나 육류 산적 등 고기류를 올린다. 절에서는 천도를 위하여 올리는 상에 희생물인 육류나 생선류는 올리지 않는다. 또한, 살생을 금하는 전통은 물론이거니와 부처님의 법문과 의식으로 영가를 천도한다는 뜻이 더 강하므로 공손하며 삼간다는 뜻의 '재' (齋)자를 쓰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1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 기획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2	4	9					
					4			
7		2				1		
1		6					8	
	7		4			1		
9				3			5	
4				1			3	
	8							
			5	7	6	4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4							7
			1	6				9
					2			
		7		8				9
	6		5		1		4	
	2			9		8		
2			6					
			1	3				
5							3	1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7	9	2	9	6	1	2	8
1	2	9	7	2	8	9	9	6
6	8	2	1	9	8	9	7	2
7	9	2	8	8	1	9	6	2
9	2	1	6	7	9	2	8	8
8	8	6	2	2	9	7	1	9
9	1	8	9	8	2	6	2	7
2	6	7	8	1	2	8	9	9
2	9	8	9	6	7	2	8	1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8	6	8	7	2	9	2	9
8	9	9	8	1	2	7	6	2
2	2	7	6	9	9	8	8	1
9	1	8	2	6	7	9	2	8
8	7	2	1	2	9	8	9	6
9	6	2	9	8	8	2	1	7
7	9	1	2	2	8	6	8	9
6	8	8	7	9	1	2	9	2
2	2	9	9	8	6	1	7	8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